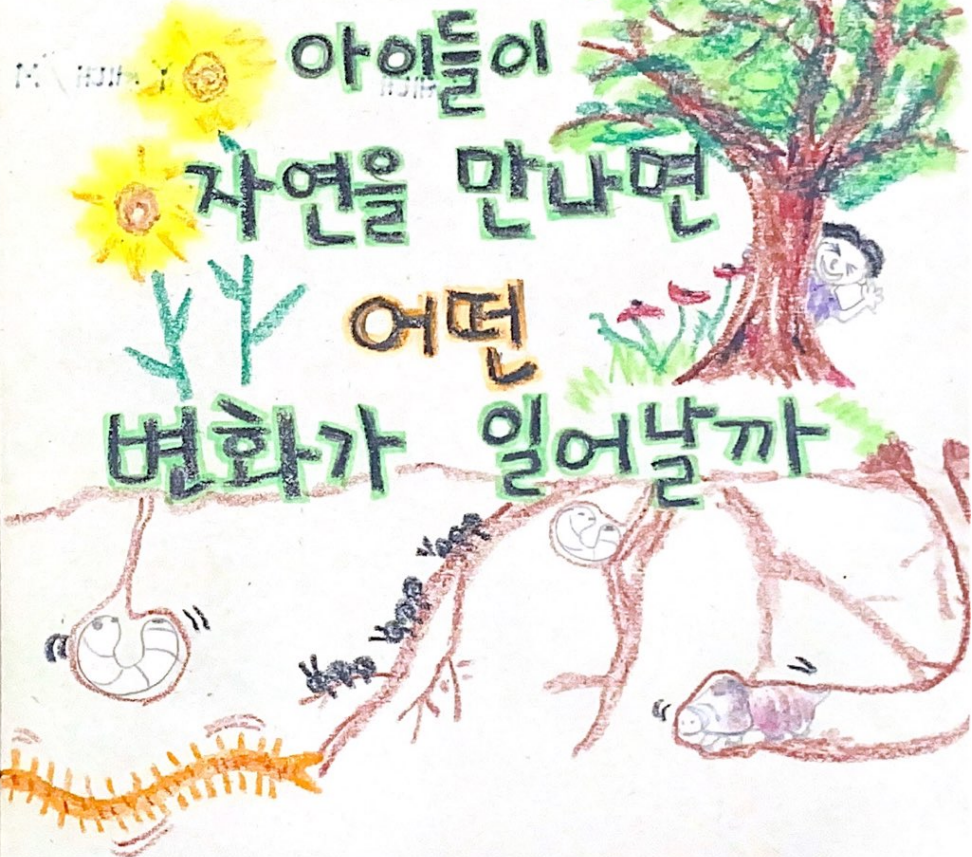


생각의 —

일상의 —

행동의 —

지구를 좋아하는 창작 노트



어린 대상 융합프로그램 (음악+유희) 기획 및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노트이자 자유 기록 노트로 작성함

2021. 5. ~ 6.

김효정 (음악치료사, 유희치료사)

미국의 저널리스트 리처드 루빈가 처음 명명한
 "자연 결핍장애"는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규정할 수
 있는 용어이다.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Nature Deficit Disorder

자연 결핍장애

난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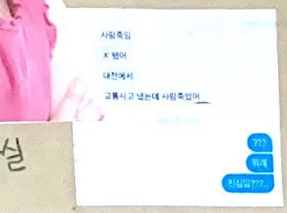
미디어를 통해 배운 자연은 촉감도 향기도 알 수가 없다



또한 매체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치유, 휴식의 정서는 대리만족을 줄 뿐
 직접적인 '내 몸이 경험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무감각
 감각의 둔화
 생명 경시
 폭력성의 증가
 공감능력 상실



'갯마을 사망사건' 가해자는 초등학생... "낙하속도 놀이 하다가"

중학생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 불구속 입건



냉소적인 태도
 분노조절문제
 왜 아이들은
 상처 입은
 화가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해 '충격'



대전 어린이 살해범은 초등학생

나고 외로워지는 걸까?

우울·불안 늘고 놀이시간 부족...우리 아이 삶의 만족도는?

입력 2019.05.23 (17:24)

스마트폰에 빠진 어린이...“6명 중 1명 중독”

입력 2017.04.23 (09:13) | 수정 2017.04.23 (09:54)

“국내 아동·청소년 24%, 휴식·자유시간 전혀 없이 생활”

입력 2018.05.28 (19:23) | 수정 2018.05.28 (19:23)

04 분석결과

아동 주요활동 권장기준 충족 vs 미충족 현황

구분	구분	충족	미충족	비율(%)
미충족	4,968,777명	4,261,887명	4,884,722명	2,879,822명
충족	1,400,227명	1,897,303명	1,624,258명	2,267,137명
전체	6,408,100명	6,208,190명	6,508,980명	6,730,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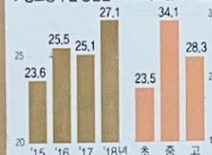
아동의 4가지 주요 활동에 대한 권장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해 비교함 (충족 VS 미충족: 과소/과다)

학생건강 관련 주요 통계

▶ 초중고생 비만율



▶ 중고생 우울 경험률 ▶ 스마트폰 과의존율



청소년 10명중 3명은 '스마트폰 중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발표
과의존 위험군 전년 대비 0.8% 증가, 상승세 둔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발표
과의존 위험군 전년 대비 0.8% 증가, 상승세 둔화

스마트폰-컴퓨터 기반 국내 사용자 중 9명 중 1명 이상에게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의존 위험군 전년 대비 0.8% 증가, 상승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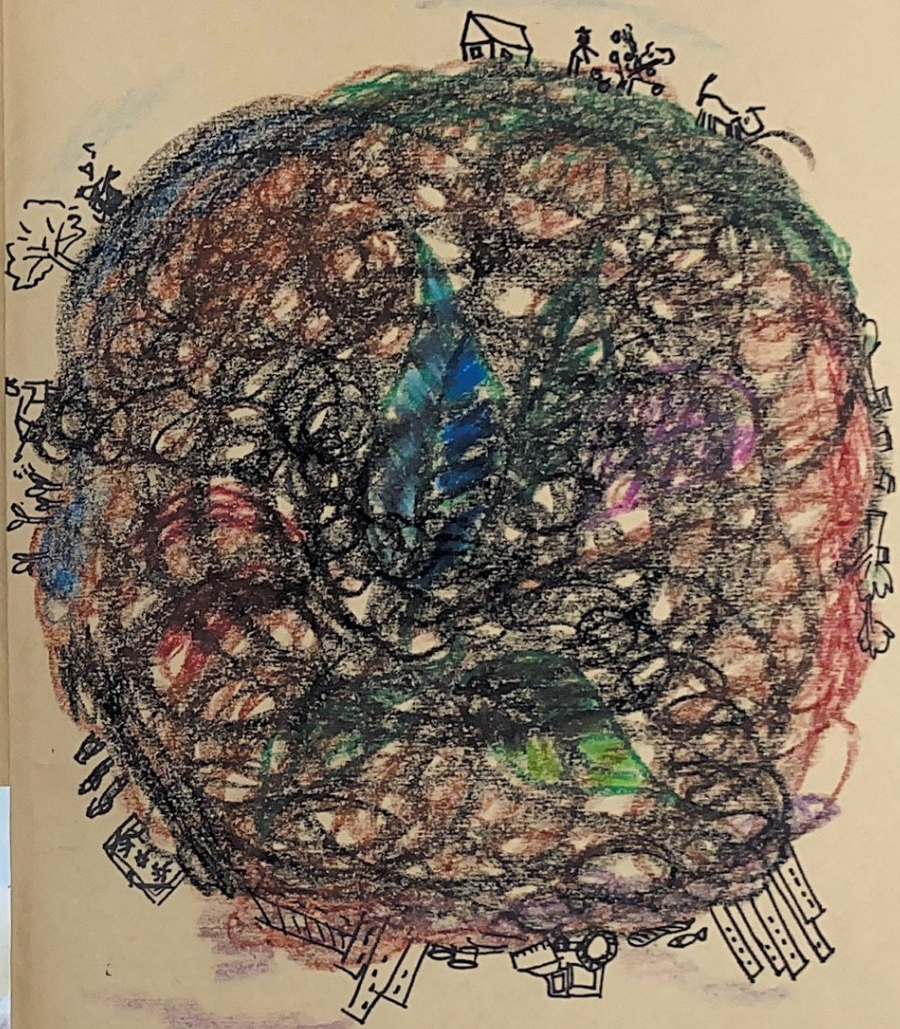


과의존 위험군 전년 대비 0.8% 증가, 상승세 둔화

니홀로 어린이 공격성 비행행동 증가

입력 2014.02.14 (09:20) | 수정 2014.02.14 (0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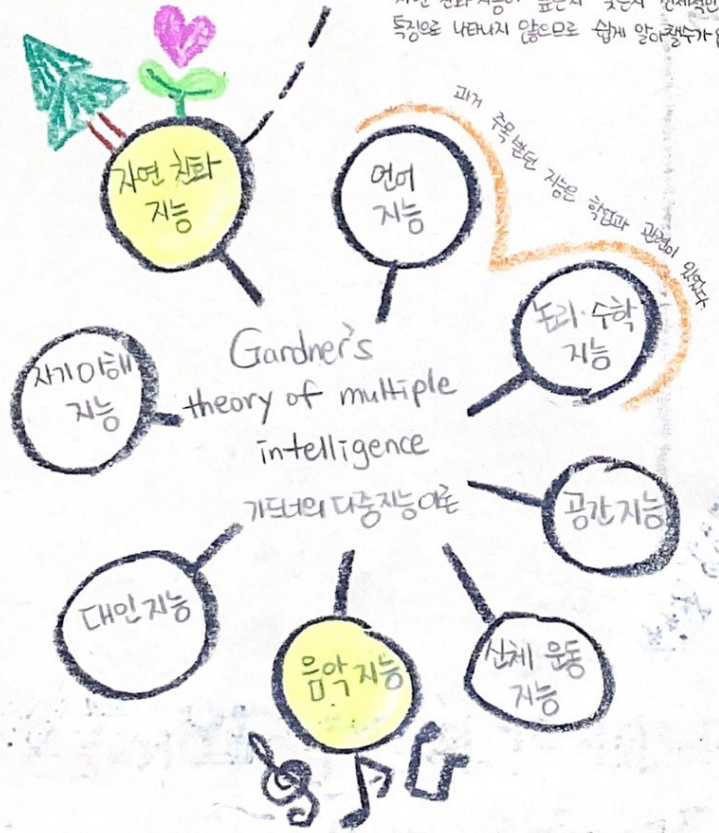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연평균 소아 우울증 환자 수 추이



Q3. 어떤 아이가 똑똑한 아이일까?

오늘에는 테이상 학업성취를 “자연 친화기능 (자연탐구기능)의 핵심 가지고 아이들의 지능을 동물, 식물, 곤충, 바위 등 자연요소를 식별하는 능력이다.” (2005. 리처드슨의 자연에서 떨어진 아이들) 평가하지 않는다. 하버드대학

교육학과 교수 가드너의 이론을 살펴보자
 하지만!! 자연 친화기능이 높으면 낮으면 신체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



- 이런 특성은 테크니보다 경험에 의해 개발된다
- 자연 탐구 기능을 갖춘 아이들의 특징
- 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감각이 예민하다
 - ② 발달된 감각기관을 이용해 자연에서의 동물, 식물, 사물을 알아보고 구분한다
 - ③ 자연에 있는 것을 좋아하거나 정원 손질, 자연에서의 산책, 자연이나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여행을 좋아한다
 - ④ 좋아하는 것, 차이점, 유사점, 특이한 사항 등 주변의 특성을 쉽게 알아낸다
 - ⑤ 동물이나 식물에 관심이 많고 잘 돌본다
 - ⑥ 주위의 다른 사물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낸다
 - ⑦ 자연에 있는 것을 수집하거나 관찰노트를 작성한다. 노트에는 관찰기록, 삽화, 그림을 넣고 사진과 견본을 붙인다
 - ⑧ 어린시절부터 자연, 과학, 동물, 다른 생태계전 포획법, 비디오테이프, 책 등에 관심이 많다
 - ⑨ 명중유기체 처한 동식물이나 환경문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 ⑩ 자연에 있는 사물이나 동식물의 성격, 이름, 분류, 정보를 쉽게 배운다



자연과 만나는 경험이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

고라니 울음소리

깊은 밤 소쩍새 울음소리

한여름 개구리가 우는 밤

타닥타닥
모닥불

청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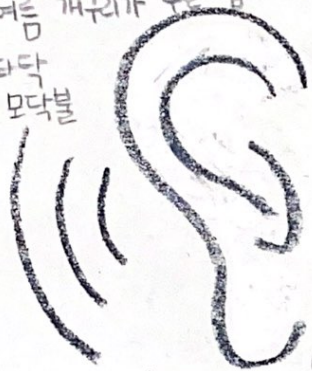
조글조글 흐르는 시내물

여름밤 배구기 울음소리

공을 차아 날아다니는 벌들의소리

지르르르 지르레기

비람부는 졸졸
바람부는 갈대밭



아이들이
자연은 만만하
느니까
이런
때
됩니다.

이른 아침 축축한 공기 냄새

가을 낙엽 태우는

냄새

환각 핀 들장미

숙으로 피우는

모깃밭 매운냄새

비오기전

바람냄새

물 적은

지푸라기냄새

상쾌한 박하향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라벤더

비내린후의 숲냄새

정원의 비냄새

비작마른 흙의 냄새

겨울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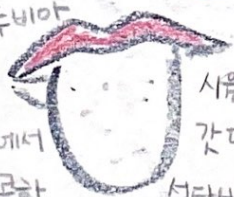
북극향기

후각

새콤달콤한 바지

달달한 꽃이 숨어있는 미각

시주비아



시원한 계몽물

갓판 신선한 사과

설탕보다 더 달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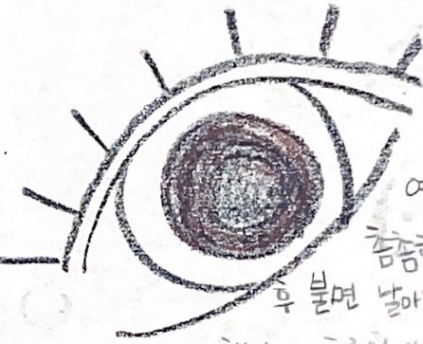
데비아

턱발에서

판사몽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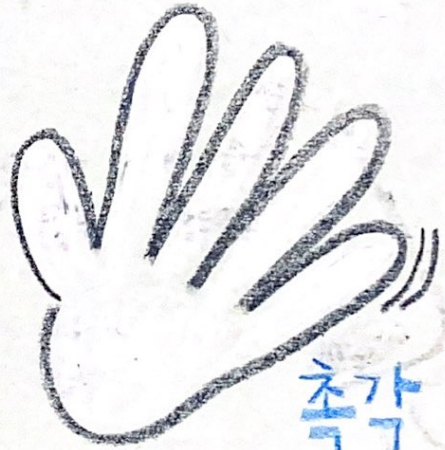
딸기

복잡미묘함도
다차원적인 감각



시각

봄에 돋아나는 새잎의 색깔
여름 들뜬게 피는 꽃들
침침히 지리잡은 해바라기씨 모습
후 불면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
햇살이 조그맣게 환할때 빛나는 잎사귀
가지 끝에 매달려있는 물방울
그 안에서 보이는 또다른 세상



촉각

마른 냇물 입을

뻘뻘 걸을때 느낌

마른 가지를 밟으면 똑똑

부러질때의 느낌

새잎의 보랏빛 축축한 감촉

솔방울의 까끌까끌한 느낌

따뜻따뜻한 솔잎. 포식할 때

아름드리 나무를 안을때 감촉



Idea 1 자연 만나기

텃밭

어떻게 하면 자연에 대한
회심을 알개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저절로 자연에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자연보호운동가 빌리 캄블-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혼내지 말고,
아이들도 허벅금 멋진 새장으로 눈을 돌리게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 어릴때 했던 재미있었던 일들을 다시 해보자”
-칼럼리스트 데보라 처치먼-

“빨라 싹이 트고 자라며 크기가 크고
돌보기 쉬운 작물을 심으며 아이들이 텃밭가꾸기에
흥미를 느낀다” -골라도주립대 대외협력처 수석원사 주디 서턴-

→ 아이들을 위한 텃밭

observation

관찰

건물 안에서 창밖을 통해 자연과
계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연을 만지고 느낄수
있는 경험이 자연경관장애를 극복하게 할수있다.



- ① 직접 채소를 키운다
- ② 자라는 과정을 관찰한다
- ③ 주변의 식물과 곤충도
함께 관찰한다



원예 활동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 경험하고 즐거움, 삶의 파란을 배울 수 있다

경험

하절기부터 세살

흙과 모래, 자갈 등 정원이나 텃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먼저보고 정월일에 작은 도구를 주수 있는 경험을 통해 농작업을 배운다

세살부터 다섯살

정원이나 텃밭의 규칙, 식물에 대한 방법을 배운다. 물주기, 흙 파기, 토기 와같은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원하는 식물을 선택하여 식물을 키우고 가꾸는 법을 익히면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다 (여름 들어 해낸 작업을 모두 혼자 완수해내기)

다섯살부터 열살

씨앗의 서로 다른 모양, 심는 방법 등을 익히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보자 또는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씨앗을 직접 심을 수 있다. 또한 모종이나 묘목 역시 텃밭에 스스로 심고 키우며 잡초를 관리할 수도 있다. 물주기를 통해 생장과 파란하고 책임감, 성취감, 희생을 키운다. 텃밭을 가꾸는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열살부터 열네살

이전 연령대에서는 생명이 허약했던 이젠 견고한 도구를 다룰 수 있게 된다. 텃밭 활동 장비와 도구의 사용법을 습득한다. 이전에 비해 기술적인 내용들을 습득한다. 이전에 비해 가꾸는 활동 (씨앗내기, 땅 파기, 잡초 제거, 물주기, 가지기, 수확하기 등)을 조금 능숙하게 하며 자신의 흥미와 취미에 따라 재밌는 텃밭을 만들 수 있다

열살부터 열세살

정식 육체적 성장에 따라 좀더 강도가 높고 복잡한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다. 강도가 높고, 모종, 묘목 심기, 잡초 제거하기, 물주기, 거름주기, 가지기, 수확하기 등 성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다. 텃밭에서 나오는 장거리, 잡초 등을 이용하여 텃밭 만들기를 통해 자연의 순환, 삶의 순환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제공될 수 있다.

< 출처 Gardening4py.com >





각자의 고유한 감각으로 경험한 텃밭/자연 활동 ▲

표현

non-verbal

아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사물을 인지하고 감각하고 표현한다.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경험을 표현해 낼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데 꼭 언어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의 표현방식이 제한될 필요는 없다.

몸으로, 소리로, 색깔과 노래로 새로운 자극을 표현하는 연습은 텃밭/자연 경험과 더불어 이루어 질 수 있다.

verbal

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 익혀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지만 가끔 아이들에게는 언어적 표현이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기에 부족할 수 있다.



▲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깊게 언어를 귀하고 재능을 표현할수있는 능력을 키운다
(동시 짓기, 말기 쓰기, 끝말잇기 주제에 맞는 단어 말하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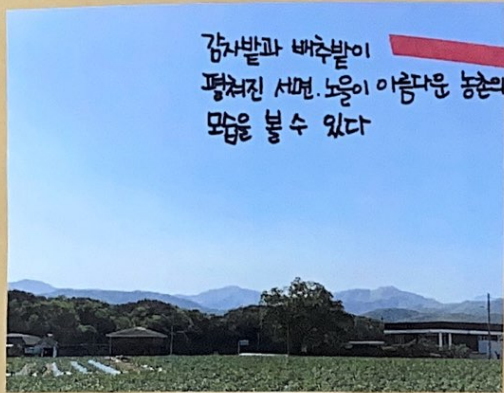


▲ 숲의 에너지를 몸동작으로 표현하기

▲ 숲의 소리, 자연의 소리로 노래 만들어 부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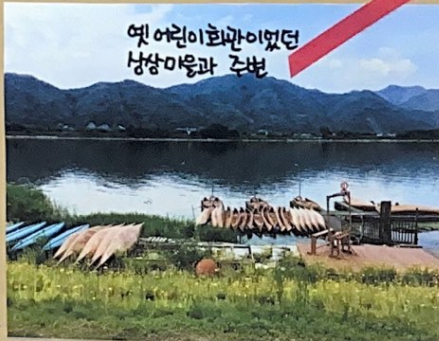
4. 춘천의 열두 달을 아이들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감사밭과 배추밭이
펼쳐진 서면. 노을이 아름다울 만큼
맑음 볼 수 있다



춘천의 상징과도 같은 봉의산



옛 어린이 환관이었던
남상마을과 주변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하중도생태공원
현안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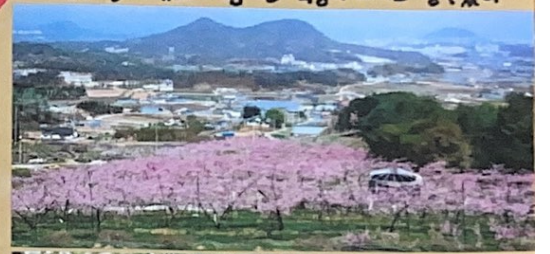
석사천 하천변 산책길을
따라 걸으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텃
하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춘천에서 탁트인 논밭을 볼 수 있는
멋 안되는 동네. 사과밭이 많은
유포리



수변생태를 관찰하기 좋은
하천변 산책로

복숭아농장이 많아 봄이면 복숭아꽃이 만발한
맑음 볼 수 있고 여름엔 복숭아 따기도 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March 감자키우기

강원도의 대표 농산물로
떠오르는 감자를 심고 가꾸기에
3월이 적합하다. 춘천 서면의
감자밭 풍경을 함께 소개할
수 있다.



- 3월에 할 일 : 감자에 싹을 틔우기 위해 씨감자를 준비 밭에 3월 하순이면 심을 수 있다.
- 감자는 자주 접하는 식재료이자 지역 토속음식의 주 재료로 친근하지만 '감자가 어떻게 자라지?' 하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
- 친근한 작물부터 텃밭으로 초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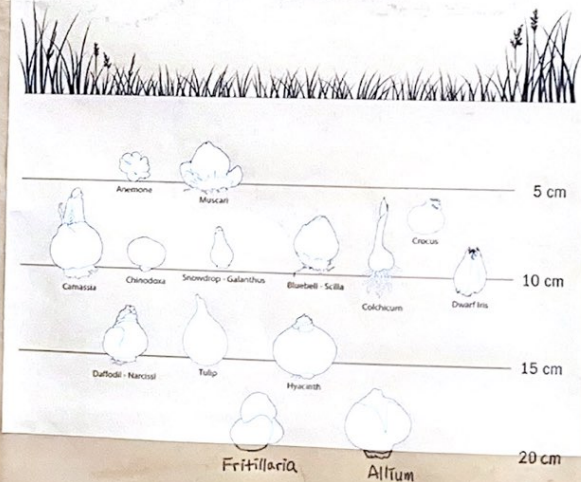
텃밭의 열두달

April 구근식물 알뿌리식물

바로써
2월부터 꽃을 피우는 구근식물이 있는데
4월까지도 다양한 구근을 통해
꽃을 피울 수 있다. 히아신스,
수선화, 튤립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들이 흔히 경험하는 색깔의 형태와
크기는 작고 단단한 알갱이 모양인데
자연에는 다양한 모양의 씨, 구근, 종근
등을 통해 식물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려준다.



Planting depths for bulbs



그리고 구근의 모양, 겉을 싸고 있는 껍질의
생김새, 촉감, 조직을 관찰하는 것은 서로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며
땅(흙)에 심거나 물에 담겨 키우는 등
가꾸는 방식 또한 달리하며 자연을 조금 더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회전에서 키우는 수선화구근
노란색 수선화가
기둥피에는 무늬
보이는 삼각형 꽃잎
증가함을 가져다
준다. 물의 상온이
저도 한 수선화
물에서 키우는
히아신스구근
작은 번모양이
방향이 틀려도 충분히
피어나며 향기가
매우 강렬하다

September 가을 첫날
 October 가을 숲

도움에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숲에서는 가을이 다가오면 벌써 숲의 냄새부터가 달라지는데

가을숲은 아이들
 만들어 볼 수
 넘쳐난다

이 만지고 보고
 있는 재료를
 자연물공예를
 집과 탐색을
 이다 봄, 여름

**냄새와 소리가
 달라지는 가을**

위한 재료를
 하기에 좋은 계절
 무성하게 자랐던 식물들이 시냇
 죽는 것을 통해 자연의 순환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냇물
 잘 채종해 두었다가
 이른봄이 되면 다시 명
 예심는 경험은 자연스럽
 게 계절의 번복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된다.



November 방안으로 들어오는
 초록색 친구

텃밭활동 경험과 함께 집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은 자연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은 물론
 안정감 불안감소 책임감 생명에 대한 애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단, 키우기가
 쉬운 식물을 선택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비비
 Heder helix

덩굴로 길게 자란다
 줄기를 잘라서 용매병도
 물병에 넣어두면 다시
 뿌리가 나아서
 번식도 쉽다
 잎이 초록색인 것도
 있고 회색이 섞인 것
 잎 표면이 매끈하거나
 주름진 등 종류가
 다양하다
 들어서는 효과가 있어
 창가, 차를 선반에
 놓아두기 좋다



• 크라수라 오바타
 Crassula ovata

방아포리가 원인이
 자생식인 다육식물이다
 기온에 강하다
 중간에 매우 두꺼워서
 내한 저항력이 강하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괜찮아서 초보자가
 키우기에 적합하다

December

12월부터 2월까지 텃밭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실내활동이나 실내활동으로
 대체한다. 자연을 실내를 꾸밀 수 있다



자연물 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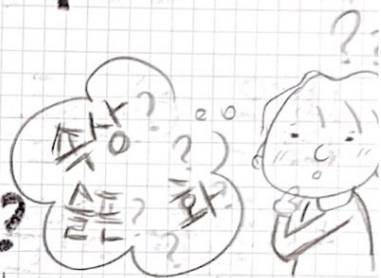
겨울에는 다소 삭막하거나 황량해지고
 느끼지는 자연 풍경이 대부분이지만 잘 살펴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자연물들이 꽤 많다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무 껍질 (짚), 솔방울, 솔잎,
 낙엽, 동양이나 나뭇가지 등은 이용해 겨울 느낌
 풍성하고 리스를 만들어 자신의 공간
 장식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가치있게
 여겨지는 것들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Idea 2.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음악으로 ♪

많은 아이들이 경험에 대한 소감은 말할 때 "좋았다"고 대답을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엔 어떤 감정이 있을 까?



MUSIC

CHILD

Therapy

meets

NATURE

음악치료 (Music Therapy)는 음악을 매개로 대상자의 심리, 정서,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예술치료의 한 분야이다. 언어적인 표현,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음악 (멜로디, 리듬, 소의 강약 등) 을 이용한 비언어적 표현과 상호 작용을 중시하게 생각한다. 안전한 자기표현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워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Music Child (Nordoff & Robbins, 1977)
Music Child는 원래 라 말로 "음악아"라 번역되어 사용된다. 즉흥연주 중심의 음악치료를 발달시킨 노르도프와 로빈슨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음악아는 "개인이 가진 음악적 능력"을 말한다. 더 말해서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각각 음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노래가 사라지고 있다

“ 요즘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 ”

요즘에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는 동요가 아니다
 애니메이션 OST나 대중가수가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노래에 속한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떤 문제라도 있는걸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이의 정서와 인성의 발달을

놓고 보자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찢어찌러트한 느낌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눈빛
 너에게 할 말도 배웠다 반쪽을 채웠다
 과거로 두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내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히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불만인 멜로드라마
 캔햄은 걸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내가 벌써 그림자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 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우린 이파도 해봤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미친 듯이 사랑했고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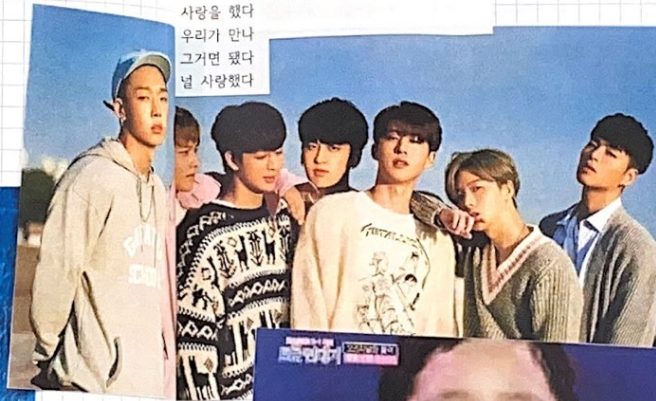
“ 아이들은 왜 어른들 흉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

아이들이 성인남녀의 사랑이나 이별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어른들의
 모습, 특히 텔레비전 매체를 보면 킥입맛이 씹쓸하다. ‘섹시맨스를 추는
 여자아이’, ‘초코칩과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때 어머니 슬픔 잊고 살았던
 하얀 보릿고개’를 부르는 어린이. 우리가 가끔씩 북한의 어린 무용수나
 가수의 어법다운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표정과 동작, 목소리를 접할때
 느끼고하는 부조화과 부자연스러움이 어딴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과연 요즘아이들이 듣고
 부르는 노래가 진짜
 아이들의 감성과 감성
 을 제대로 담고 있는가?



바람결에 지워져 갈때



The snow glow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Not a footprint to be seen 산 위에 눈이 하얗게 빛나
 A kingdom of isolation 발자국 하나 없네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갇힌 왕국 그리고 난 여왕처럼 보일꺼야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ve tried 내안에 소용돌이 치는 폭풍처럼 바람이 울어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이제 숨길 수 없어, 내노력을 하늘은 알아줄꺼야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마, 누구도 보게 하지마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항상 그랬듯, 착한 소녀가 되자
 Well, now they know 감추고 의식하지마, 누구도 알아채면 안돼
 Can't hold it back anymore 근데 이제는 알아버렸어
 Let it go, let it go 다 잊자, 내버려 두자

Turn away and slam the door 더이상 숨길 수 없어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다 잊고, 내버려두자
 Let the storm rage on 뒤돌아 문을 닫아 사람들이 뭐라하든 상관 없어
 폭풍이 계속 몰아쳐



왜 동요인가?

예전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 傳
 예전부터 **구전 동요**를 주로 불렀다. 우리가 미묘하고 알고 있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나 <강강술래>, <청어뛰기>, <씨야씨야 파랑씨야> 같은 노래들이 주이다. 하지만 이런 노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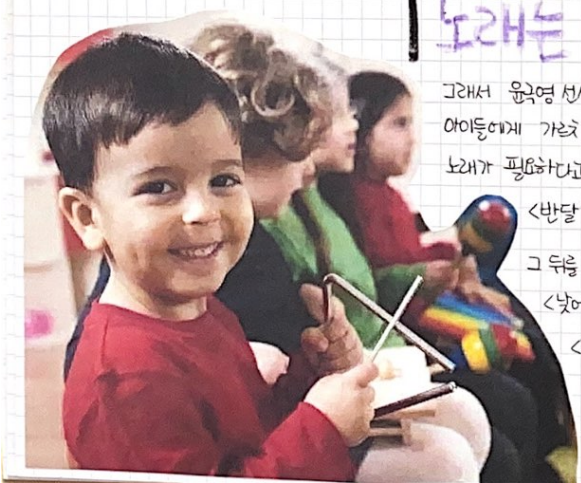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아이들 창가곡을 부르게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동요의 아버지로 불리는 **윤극영**이 귀국하여 만난 아이들은 놀랍게도 터이상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긴 노래가 아닌, 일본의 창가를 부르고 있었다. 창가는 그 이후의 배경도 일본에 19세기 후반 서양곡조에 노랫말을 붙인 노래를 뜻하는 말인 '쇼카 명곡'은 우리나라 식으로 읽은 것일만큼 일본의 문화가 그대로 스며있는 노래들이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꽃길 갈라
 저기 저기 저달속에 계속나무 박혔으니
 푸드득로 찍어내고 금노래로 다듬어
 초가삼간 참을 진은 양친부모 모더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양친부모 모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노래는 사람의 걸을 만든다

창가곡은 <쇼카>이다
 그래서 윤극영 선생은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에게 가느스니 신나게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위한 노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뒤로도 만났는지 유명한 <반달>, <고드름>, <파파기> 등을 만들게 된다. 그 뒤를 이어 홍난파의 <고향의 봄>, <풍상풍담>, <낮에 나온 반달>, 박태준의 <오빠 생각>, <맘مم>, 박태현의 <봄맞이 가사> 등 많은 동요들이 작곡되어 동요의 황금시대를 맞게 되었다.



부모와 아이, 구세대와 신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동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어도, 서로 다른 경험을 했더라도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진한 유대감을 갖게 한다. 그래서 동요를 함께 부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경험해야 하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정서들로 이루어진 가사와 멜로디가 유년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 주는 마음의 안식처로 이끌어주게 될 것이다. 실제로 치매노인들이 다른 노래들을 잘 기억을 못해도 어린시절 부르던 동요는 또렷하게 따라부르고 또 그 당시의 추억과 감정, 정서를 동요를 통해 기억해 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동요는 우리의 어린 시절의 감정/감성을 마치 사진처럼 기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이누마씨가 어느 지역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동요를 들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 어머니는 현대 음악에는 소리 장치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괴리분한 옛날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과연 얻을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하셨습니다.

가이누마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이가 어렸을때 어떤 때는 <인공삼괴>를 들었고 함께 부르세요. 몇 분 지내면 아이는 서투르게 들어갑니다. 다정하게 엄마를 부르던 아이가 어느 날 거침 표정을 써가며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때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가이누마야 왜 우리? 아이! 산목 등리에 예쁜 새끼가 있구나!」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는 몇 차례 엄마가 불러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엄마에게 점점지처럼 붙어 다녔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땐 재롱 아저준 엄마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에 몹시 후회할 확 겁니다. 그때 옛날 동요를 불러주기를 감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에서 도하시로 <도파타타> 중에서

동요는 아이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동요는 아동의 두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내용 독일의 대표적 동요 몇 가지를 부른 어린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 비교 연구함.

연구결과 동요를 부른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더 빨리 언어를 습득했고 음악이 특별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두뇌를 성숙하게 한다, 는 결론에 도달함.

“뿐만 아니라 동요를 부르는 동안 원뿔을 치거나 티악기를 두드리거나 종이를 흔들어서 노래를 내는 행위는 아이들의 운동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교육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Wilfried Gruhn
독일 음악교육학자 빌프리트 그른

Dierk Zaiser
독일 트로싱엔 음대교수

박우경
2008

이영희
2004

반대로 부르기 힘든 음역대의 동요는 어린이들에게 불안, 공포, 두려움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

“다양히 아름다운 멜로디, 가사보다 노래하기 편한 음역대의 동요가 어린이들에게 행복, 만족, 기쁨을 준다.”

-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타인과의 관계, 상황에 따른 정서가 표현된
- ① 다양한 노래를 부르며 자아개념이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 ② 동요의 노래말이 담고 있는 다양한 정서를 이해할 수 있었다
 - ③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자기조절, 규칙준수의 의욕을 보였다

“동요를 활용하여 영유아인성교육을 실시했을 때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음악은 아이들의 언어능력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언어를 배우는 단계 (아직 말하지 못하는 단계) 부터 음악이 시기에 도 아이가 노래를 듣는 행위로부터 아이의 두뇌는 자극된다
아이가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여 문장을 구성하게 되기까지 동요는 아이의 어휘력, 발음, 문법,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 동요를 많이 듣고 부른 아이가 언어능력이 더 뛰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민족정서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동요

88 앞서 이야기한것 처럼 일분풍 가락과 노랫말이 붙여진 창가를 아이들이 부르는것을 보고 윤극영선생이 우리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동요를 작곡한 것을 계기로 여러 민족 작곡가들이 동요를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적 동요로 널리 불리우고 있으며 세대와 민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고향의 봄

李元壽 謠
洪蘭坡 曲

優美하게

나 인 양 - 던
꽃 - 피 - 리

고향의 봄에 묘사된 풍경은 이원수인교향악
창원시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노래이다보니
북한에서도 불리고 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인천장, 환송식 공연에서도
불렸다.

박태현이 작곡한
<봄맞이 가자>에서는
봄을 기대며 희망어찬
정서와 봄의 소망들이 잘

반달

윤극영 작사
윤극영 작곡

조금 느리게

1. 푸 른하 늘은 - 하수 하 안쪽 배에 -
2. 은 하수 를 건 - 너서 구 름나 라로 -

계 수나 무한 - 나무 도 끼한 마 리 -
구 름나 라지 - 나선 어 디로 가 나 -

돛 대도 아 니 달고 샷 대도 없 이 -
멀 리서 반 짝 반 짝 비 치이 는 건 -

가 기 도 잘 도 간 다 서 - 쪽나 라로 -
셋 별 이 등 대만 다 길 - 음 찾 아 라 -

4 일제강점기시대 1924년 윤극영이 작곡, 작사 한 동요 <반달>은 근대 후반도 최초의 창작 동요로 인정받고 있다. 은하수에 떠 있는 하얀 죽바를 바탕으로 비유, 달에 토끼가 있다는 목동기 설화를 차용해 가사에 토끼가 등장한다. 마지막구절에서는 달이 서쪽으로 지는 것을 표현했다 노래의 분위기는 서정적이고 고풍하며 슬픈듯 하다.

동요는 특히 그 나라의 정서, 역사, 풍경등이 잘 묘사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어떤 장르의 노래들보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서정적으로 다가 온다.

봄맞이 가자

김태호 작사
박태현 작곡

봄 무 들 아 오 너 라 봄 맞 이 가 자
봄 무 들 아 오 너 라 봄 맞 이 가 자

너 도 나 도 바 구 니 옆 에 끼 고 서
시 냇 가 에 앉 아 서 다 리 도 쉬 고

달 래 냉 이 썸 바 - 귀 나 물 캐 오 자
버 들 피 리 만 들 - 어 불 면 서 가 자

총 다 리 도 불 이 떠 노 래 - 부르 네
피 고 리 도 산 에 서 노 래 - 부르 네

4 1927년 이원수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 하며 지은 시를 노랫말로 하여 흥남포가 꽃을 붙인 <고향의 봄>은 지금은 널리 불리는 대표 동요이다. 고향의 봄에 묘사된 풍경은 이원수인교향악 창원시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노래이다보니 북한에서도 불리고 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인천장, 환송식 공연에서도 불렸다.

박태현이 작곡한 <봄맞이 가자>에서는 봄을 기대며 희망어찬 정서와 봄의 소망들이 잘

현대 창작 동요

198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최대 규모의 창작동요제가 열렸다. (MBC 창작동요제) 이 동요제를 통해 지금까지 사랑받는 <아빠 힘내세요>, <아기염소>, <네잎클로버> 등이 발굴되었다.

노을 이종진 작사 · 안오철 작곡

조금 빠르게

노을
 고개속 인 는 밤의 열 때 노닐게 기억만가 는
 가 돌아왔어 물다간 물 편 에 모 락모락피어나는 저 녀 연 기
 녀 - 동문길 아 입은 가 울연덕에 뽕 - 겨 물들여 따 는 저 녀 눈
 녀 - 동문길 아 입은 가 울연덕에 뽕 - 겨 물들여 따 는 저 녀 눈
 허수아비 한 벌이 꽃 을 짓 고 초 가지몽둥근덕 잠 - 못 - 데

노을
 고개속 인 는 밤의 열 때 노닐게 기억만가 는
 가 돌아왔어 물다간 물 편 에 모 락모락피어나는 저 녀 연 기
 녀 - 동문길 아 입은 가 울연덕에 뽕 - 겨 물들여 따 는 저 녀 눈
 녀 - 동문길 아 입은 가 울연덕에 뽕 - 겨 물들여 따 는 저 녀 눈

▲ 1984년 제2회 MBC 창작동요제 대상곡으로 가장조(A Major), 동박자, 16바다 두도악형식, 조금 빠르게 부르면서 점성음표와 16분음표를 주요 리듬을 잘 살려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곡.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동요로 뽑히기도 했을만큼 유명한 동요이다. 노을을 작사한 이종진 선생이 평택의 안성원 너머 소재방로 저운 노을에 영감을 얻어 새내려간 곡이다. 사연을 주제로 쓰인 가사는 아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 초등학교 교안서에도 실려 있다.

MBC 창작동요제 제3회 대상곡
 내림 나장조, 4/4박자, 160bpm,
 두드림, 당김음 주로 사용한다
 경쾌하고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곡이다. 아이들의 신나고 즐거운
 마음이 가사로 잘 표현되어
 있다.

즐거운 소풍길
 (1985년 제3회 대상)

이현숙 작사
 김형수 작곡

재미 있고 경쾌하게

1. 시냇물 건너 숲속 오솔길따라 시
 2. 높은산위에서 울타 울타 울타 울타 시

발걸음이 비 오는 계절
 산리워 구름을 등실터가네

엄마 아빠 손잡고 - 달 라달라노래 부르면
 아 빠라 아야호 - 예 아리도마로아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놀고
 큰 웃음 터뜨려 아야호 -

이 세상이 온 것만 같아
 산세월도 따라잡지

전래동요

일제강점기 이전 아이들은 입을 통해
 전해지는 민요를 동요삼아 부렀다.
 민요는 조상들의 생활 정서, 사상이
 녹아있는 노래인데 아이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고 그러한
 정서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조급느리게 전래 동요

1.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 자장 우리 - 아기
 2. 자장 자장 온 자장 온 우리 아기 자장 - 잔다

모뎀 달아 -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 잘라
 꼬뎀 달아 - 깃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 잘라
 금을 주면 - 너를 사며 은을 주면 너를 - 사라
 나라 예는 - 중신 동이 부모 예는 효자 - 동이

(후렴)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자장 자장 잔도 - 잔다

▲ **자장가**
 충청도 지방의 전래동요로 가사 내용을 보면
 아이가 직접 부르기 보다 아이를 어른이나 재물
 데 누나가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듬의 형태가 단조롭고 반복이 많아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부모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 **매형이 소리**
 매미가 우는 소리를 '매형 매형'으로 표현한
 경북지방의 전래동요이다. 이따들이 좋아하는 곤충인
 매미를 주제로 한 노래이다.

자전모리 전래 동요

1. 실 구대 실 구대 - 실 구대 풀이 풀이 가네
 2. 모 부대 모 부대 - 모 구대 풀이 풀이 가네
 3. 절 이 세 절 이 세 - 매 - 추 입 지 절 - 이 세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 **실구대 소리**
 충청도 지방의 전래동요로 어른들이 가마농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 비교적 빠른 장단인
 "자전모리" 장단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리듬을 갖고 있다. 가사를 살펴보면 놀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 보다는 일년간 엄마와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감정이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실구대는 여원라 그듯이 명쾌하라는 않으나
 강박할 때 쓰는 설이 강긴 파라는 추측이 있다.
 아이가 일년간 부모를 기다리며 집에서 실구대
 생을 같은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 꼬구대역시 확실하지는 않으나 달장을 곁사는
 짝으로 만드느 주머니털거라는 설이 유력하다.

중중모리 전래 동요

매 동매 동매 매 동 손 달 래 모 실래
 니 가 어디 서자왔 노 저 산 중에 자고났네
 산 중에 안 팔 도 집 다 마 다에 안 물 도 팔 다
 산 중에 만나 무도 팔 다 강 편에 안 물 도 팔 다
 매 동매 동매 매 동 매 동매 동매 매 동

다른 나라의 동요 1. 독일

동요를 살펴보면 각 나라 또는 지역의 **경관적, 문화적, 생활과 관련된 특징들**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동요가 서정적인 자연 풍경과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일상을 노래한 것처럼 다른 나라의 동요에서도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동요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정서와 맞닿아 있어 동요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Es war eine Mutter
www.musicaktiv.com

Musical score for 'Es war eine Mutter' in 3/4 time. The melody is simple and folk-like. The lyrics are: Es war eine Mutter, die hatte vier Kinder, den Frühling, den Sommer, den Herbst und den Winter.

2절가사
Der Frühling bringt Blumen, der Sommer den Klee,
der Herbst, der bringt Trauben, der Winter den Schnee.
봄은 꽃을, 여름은 클로버를, 가을은 포도를, 겨울은 눈을 가지고 오네.

3절가사
Und wie sie sich schwingen im Jahresreihn,
so tanzen und singen wir fröhlich darein.
그리고 계절의 순서대로 가네를 태네. 즐겁고 노래하고 우리도 즐겁게 함께 하네.

4절가사
Das klatschen, das klatschen das muss man
verstehen, da muss man sich dreimal im kreise
umdrehn.

적적따닥, 짹따닥.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지, 서번 넝빙 돌아야만 하는 것은.

1절가사 Es war eine Mutter, die hatte vier Kinder, den Frühling, den Sommer, den Herbst und den Winter.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네 명의 여매가 있었네.

계절의 변화를 유행적으로 나타낸 노래. 독일의 동요는 이처럼 계절을 외시한 노래가 많다. 이 노래의 경우 계절에 따른 변화와 변화의 순서에 대해 노래한다.

In meinem kleinen Apfel

www.musicaktiv.com

Musical score for 'In meinem kleinen Apfel' in 4/4 time. The melody is simple and folk-like. The lyrics are: In meinem kleinen Apfel, da sieht es lustig aus. Es sind darin fünf Stübchen grad wie in einem Haus.

2. In jedem Stübchen wohnen zwei Kernchen schwarz und fein, die liegen drin und träumen vom lieben Sonnenschein.

각각의 밤마다 작고 예쁜 두개의 까만 씨앗 그 속에서 누워 꿈꾸는데, 시원스런 햇살을.

1절가사 내 작은 사과속에는 썬여있는게 있지 그 속에는 다섯개의 작은방이 마치 한 집에 있는 것처럼 있단네.

3. Sie träumen auch noch weiter gar einen schönen Traum, wie sie einst werden hängen am lieben Weihnachtsbaum.

그들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꿈을 꾸지. 사자가 되어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려 장식되는 것을.

독일의 대표적인 가을 과일 사과를 단맛을 표현하는 사과를 다인화하여 추운 겨울 따뜻한 크리스마스에 트리 장식으로 장식되는 나무를 노래에 담았다.



Ich liebe den Frühling

Text: Traditionell | Melodie: Traditionell

1. G Em Am D
 Ich lieb den Früh - ling, ich lieb den Son - nen schein,
 2. G Em Am D
 Wann wird es end - lich mal wie - der wär - mer sein?
 3. G Em Am D
 Schnee, Eis und Käl - te müs - sen bald ver - gehn.
 4. G Em Am D
 Dum, di da, di dum, di da, di dum, di da, di dum, di da, di

1절 가사

Ich liebe den Frühling.
 Ich liebe den Sonnenschein.
 Wann wird es endlich
 Mal wieder Sommer sein?
 Schnee, Eis und Kälte
 Müssen bald vergehen.

Dum di da di Dum di da di
 Dum di da di Dum di da di

나는 봄을 사랑해.
 나는 햇살을 사랑해.
 언제 언제 다시 여름이 되지?
 눈, 얼음 그리고 추위는 곧 사라져야만 해
 둥디디 둥디디
 둥디디 둥디디.

< 3 > 4절 생략 >

2절 가사

Ich liebe den Sommer.
 Ich liebe den Sand, das Meer,
 Sandburgen bauen
 Und keinen Regen mehr.
 Eis essen, Sonnenschein,
 So soll's immer sein.

Dum di da di Dum di da di
 Dum di da di Dum di da di

나는 여름을 사랑해
 나는 모래와 바다를 사랑해.
 모래성 쌓는 것도.
 더이상 비는 그만.
 아이스크림을 먹고 햇살이 비추는 것
 늘 그대야만 한다네.
 둥디디. 둥디디
 둥디디. 둥디디.

Die Blümelein, sie schlafen

Text: Anton Wilhelm von Zuccalmaglio | Melodie: Traditionell

F Dm C Dm Gm F C
 Die Blü - me - lein, sie schla - fen schon längst im Mon - den - schein, sie
 F Dm C Dm Gm F C
 ni - cken mit den Köp - fen auf ihr - en Stän - ge - lein. Es...
 F B Gm F C
 rüt - telt sich der Blü - ten - baum, er säu - selt wie im Traum:
 F C Dm B F C F
 Schla - fe, schla - fe... schlaf du, mein Kin - de - lein!

1절 가사

Die Blümelein, sie schlafen
 Schon längst im Mondenschein,
 Sie nicken mit den Köpfen
 Auf ihren Stengeln.
 Es rüttelt sich der Blütenbaum,
 Er säuselt wie im Traum;
 Schlafe, Schlafe,
 Schlaf du, mein Kinderlein.

작은 꽃송이들, 이미 달이래 잠자고 있네.
 줄기 끝에서 고개를 굽혀 굽혀 졸고 있네.
 꽃이 만발한 나무가 흔들리네.
 나무가 꿈에서인듯 속삭이네, 잠자라
 잘자라, 잘자라
 잘자라, 나의 아이미야

< 3, 4절 생략 >

2절 가사

Die Vögelern, sie sangen
 So süß im Sonnenschein,
 Sie sind zur Ruh gegangen
 In ihre Nestchen klein.
 Das Heimglück in dem Ährengrund
 Es tut allein sich kund.
 Schlafe, Schlafe,
 Schlaf du, mein Kinderlein.

새들의 노래를 ~~들~~ 들었다.
 햇살 속에서 아름답게.
 새들도 새들이 작은 둥지로 쉬러갔다네.
 귀뚜라미가 옥수수밭갈래에서
 홀로 있다는 것을 알릴 뻔.
 잘자라, 잘자라
 잘자라, 내 아이미야.

다른 나라의 동요 2. 영국

영국 동요는 농촌의 풍경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 독일의 동요가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풍경, 일상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듯이 각각의 나라의 문화와 생활이 동요를 통해 잘 나타난다.

영국의 동요는 민요가 동요의 형태도 굳어지며 전해진 노래들이 많으며 이야기극의 가사, 뱃사람들의 문화와 관련된 곡들이 많다.

The Big Ship Sails On The Alley, Alley, Oh!

THE BIG SHIP SAILS ON THE ALL - EY ALL - EY OHI THE

ALL - EY, ALL - EY OHI THE ALL - EY, ALL - EY OHI THE BIG SHIP SAILS ON THE

ALL - EY, ALL - EY OHI ON THE LAST DAY OF SEPT - EMB - ER.

THE CAPTAIN SAYS THAT WILL NEVER NEVER DO,
NEVER NEVER DO, NEVER NEVER DO,
THE CAPTAIN SAYS THAT WILL NEVER NEVER DO,
ON THE LAST DAY OF SEPTEMBER.

THE BIG SHIP SANK TO THE BOTTOM OF THE SEA,
THE BOTTOM OF THE SEA, THE BOTTOM OF THE SEA,
THE BIG SHIP SANK TO THE BOTTOM OF THE SEA,
ON THE LAST DAY OF SEPTEMBER.

WE ALL DIP OUR HEADS IN THE DEEP BLUE SEA,
THE DEEP BLUE SEA, THE DEEP BLUE SEA,
WE ALL DIP OUR HEADS IN THE DEEP BLUE SEA,
ON THE LAST DAY OF SEPTEMBER.

Sing A Song Of Sixpence

Traditional

Sing a song of six - pence A poc - ket full of
The King was in his counting house Count - ing our his

rye; Four and twen - ty Black - birds baked in a
money, The Queen was in the par - lour eat - ing bread and

pie; When the pie was o - pen'd The
honey; The maid was in the gar - den

birds be - gan to sing, Oh, was not that a
hang - ing out the clothes, There came a lit - tle

dain - ty dish to set be - fore the King.
black - bird and pecked of her nose.

[아이들이 자연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연물 놀이 프로젝트 1

2021년 4월 17일 춘천 봄내림놀이터 1호 '잼잼 놀이터'에서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참석인원: 약 230여명)



들판에 피 만들레를 채집하여 밀가루 반죽 클레이를 만들었음. 송병울에 크레이와 소나무 잎을 장식하여 과즙차, 공룡, 관충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봄



'어린이'와 '성인'과 '행정'이 함께 만든
<춘천 봄내림놀이터 1호 '잼잼'>
미재미
잼잼
개장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숲을 정리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텃밭노 식을 입혀 나무모종을 만듬 ▲
봄에 피는 꽃의 꽃잎으로 압화그림 달력을 만들었음 ▼



[아이들이 자연을 만났던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연물 놀이 프로젝트 II

- ⊗ 추천 시립도서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자연물 놀이 <숲을 만지작>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 (기간: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주 1회, 총 12회) 하였다
- ⊗ 재료로 사용된 자연물과 관련된 도서를 함께 읽어보는 것을 통해 바깥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인원: 약 120여명)
- ⊗ 12주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도서관 로비에 지금까지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 자연물 만들기 체험을 제공했다. (참여 인원: 약 200여명)



앞으로 이어나갔으면 하는 대면형 프로젝트

[아이들이 자연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텃밭편

아이들과 함께하는 짧은 대면 프로그램과 장기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자연과 만나는 경험을 과연 K타를 통해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과 비대면 K타 프로그램이 '자연도 주목하며 집으로 배달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키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린이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떨칠 수 없는 고민이다.

찰흙을 처음 만져보는 아이가 대부분이었고 나뭇잎에 붙은 애벌레를 더럽혀 생각하는 부모가 많았다. 매 동작마다 물티슈로 닦아내야 하는 더러움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내 존재하는 듯 느껴졌다. 텃밭에서 아이들은 정말 더럽고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괜찮은 것은 무엇인지, 마음껏 만지고 실컷 웃을 더럽히며 웃음으로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느낌과 감정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아이디어로 자유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텃밭을 가꾸고 나뭇잎을, 그리고 자연을 노래하는 날이 곧 오기를.

<참고서적>

- ♀ 정월생활자의 열두달 모험아
- ♀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 리처드 루브
- ♀ 자립유리된 자연으로 간다 리처드 루브
- ♀ Lexikon Musiktherapie - Hans-Helmut Decker-Voigt, Eckhard Weymann(Hrv)

<참고문헌>

- ♪ 돌봄애헤탈들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김양희 1974
- ♪ 돌봄지도가 어린이의 정서기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들을 중심으로 박도영 2012
- 창작동요와 전래동요가 어린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이영희 2004
- 돌봄애헤탈들이 어린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김양희 1974